

철도건축물 설계기준 개선 추진

- 설계기준 개선 워크숍 시행으로 적극적인 기준개선 활동 펼쳐 -

기획혁신본부(본부장 김영우)는 2월 17일 본사 및 5개 지역 본부의 건축·설비분야 직원과 설계·감리 등 협력업체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설계기준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'을 개최하고 44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, 3월부터 철도건축설비 설계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

주요 개선내용으로는 ▲승차권의 발전형태 변화(스마트폰 등 자가발전 확대에 따른 승객의 대기시간과 이동 통신 등 이동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역사 시설기준 변경, ▲매점, 화장실, 수유실 등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, ▲철도와 연계교통의 접근 편의를 위한 이동 동선 단속 등으로 경제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여객편의 증진 등이다.

본부는 앞으로도 철도역사 및 건축물의 비효율적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저비용·고품질의 철도건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

정기안전점검 실효성 향상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정

- 130개 철도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업무에 적용 -

안전실(실장 허복수)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「정기안전점검 업무 매뉴얼」 제정을 완료하고, 철도건설에 참여 중인 46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월 28일 교육 시행 후 3월 1일부터 전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.

본 매뉴얼에는 △계획 수립 △사전조사 △외관 조사 △비파괴검사 △기초조사 △토공조사 △현장 안전실태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요령을 담았으며, 부록에는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샘플, 결함 보수 방안,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등 관련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.

특히, 공중별 점검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안전점검 시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, 또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시 외관조사방법도 작성 및 결함표시 방법을 통일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.

안전실 관계자는 "본 매뉴얼을

정기안전점검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고,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여 철도구조물의 건설 시공 유도과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라고 밝혔다.

앞으로도 안전실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 참여자간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기준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소시키는 등 선제적 안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



창원시내 폐선 궤도철거로 지역주민들 생활환경 개선

- 창원시 사비인입철도 궤도철거 완료 -

영남본부(본부장 이태균)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551-2번지 일원의 (구)사비인입철도에 대해 진해구와 협의를 거쳐 폐선된 구간의 궤도를 철거했다.

그간 사비인입철도는 비로 등 화물을 운반하여 왔으나 2008년 물동량 감소로 전용철도 운영이 중지되었고, 2012년 7월 전용철도 등 록이 취소되었으며, 폐선된 선로는 오물 투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.

이에 본부는 폐선된 궤도 350m를 완전 철거함으로써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진해구청은 이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통행로 및 노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.

본부 관계자는 "폐선부지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하겠다"고 전했다.



기술본부, 신호·통신 워크숍 개최

- 창조적 업무 및 조직문화 조성 통한 정부3.0 실현 -

기술본부(본부장 임영록) 신호/통신사는 2월 7일 본사에서 업무개선 개진 및 창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"공정하고 투명한 창조적인 조직문화 조성"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.

본부는 신호와 통신을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(KR-TC) 개발을 기반으로 통합하여 철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기준을 정립하고 열차제어시스템 구축방안과 철도통합무선통신(LTE-R)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허상원 신호/통신차장은 워크숍에서 ▲업무 및 의사 개선을 통한 정부3.0 실현, ▲변화에 능동적 대처하여 공단 발전 이바지, ▲철도 신호/통신 융합을 통해 기술발전 도모, ▲철도 신호/통신 분야의 국가적 리더 역할 및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 마련을 당부했다.

본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전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여 자체설계 및 감리를 통한 기술역량 향상을 도모하여 철도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, 대외적으로는 협력사 및 유관기관과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신호와 통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

수도권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기술검토 토론회 개최

- 열린 토론 통해 최적의 고속철도시스템 선정방안 마련 -

기술본부(본부장 임영록)는 2월 19일 본사에서 철도공사, 지자체, 철도기술연구원, 철도신호 협회, 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'수도권고속철도 수서~평택구간 열차제어시스템' 기술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.

열차제어시스템은 최고 시속 300km/h로 운행되는 고속열차의 안전 운영을 위한 시스템으로, 선형열차의 위치 및 선로 조건에 따라 열차 안전운행에 적합한 속도정보와 선로구배, 진행구간 거리를 고속열차의 차상장치에 전송하여 기관차에 허용속도를 표시하고, 열차가 허용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 시 자동으로 열차의 속도를 줄이게 된다.

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스템의 기술 이전 및 국산성, 안전성, 경제성, 유지보수 및 확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, 향후 수도권 GTX사업과의 연계 및 기존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는 한편,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스템사양이 비슷한 경우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완벽한 기술이전 및 충분한 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.

본부는 시스템 선정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토론회를 통해 국내 업체와 코레일 등 철도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,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선정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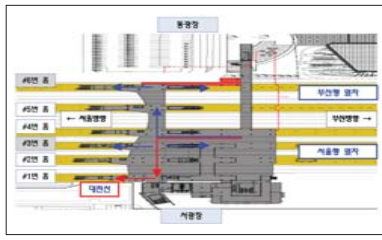


대전선(대전역~서대전역) 3월 1일 운행 재개

충청본부(본부장 노병국)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의 대전역 구내 선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, 2013년 1월 1일부터 일시 운행 중지했던 대전선(대전역~서대전역)을 2014년 3월 1일 00시부터 중단대로 운행 정상화했다.

이에 따라, 대전선 출발·도착 열차는 1번홍(1, 2번 선로)으로 운행되고, 경부선 고속 및 일반 열차는 현행과 같이 각각 상선 2, 3번홍(3~6번선), 하선은 6번홍(11, 12번 선로)을 이용한다.

본부 관계자는 "대전선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그동안 대전역~서대전역간 서틀버스운행(1일 3회)을 이용한 환승 횟수 및 환승거리가 단축되어 대전역에서 경부·호남선 열차를 환승하는 고객들의 편리 증진이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

충청본부, 육군공병학교에서 안보 및 보안교육 실시

충청본부(본부장 노병국)는 3월 5일 전남 장성에 위치한 육군공병학교에서 행정부장(육군대령 박철규)을 초청 강사로 초빙하여 안보 및 보안교육을 시행했다.

이날 실시한 안보교육은 우리민족의 안보역사를 토대로 한반도 주변정세의 영토분쟁과 군사력 증강 및 북한의 현실 등에 대한 우리의 자세 등 영토주권회복과 올바른 역사·의식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.

본부와 육군공병학교는 2013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유대관계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등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.

노 본부장은 "정례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해 국가 또는 지역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총력 안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"며 "이번 교육을 통하여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

영남본부, 실무교육 통한 직원 역량강화 앞장서

- '14년 기술실무역량강화교육 시행 -

영남본부(본부장 이태균)는 직원들의 철도 교육은 구조물의 철근상세도 보는 법, 구조 기술 설계분야 역량강화 및 현장 내 부실시공 개선사 확인 방법 및 품질·안전·공정 분야에 방지·품질 결함 근절을 위해 2월 4일부터 관련 실무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된다. 3월 6일까지 5주간 「'14년 기술실무역량강화 교육」을 시행했다.

본부는 앞으로도 외부전문가 초빙 등 지속적인 직원역량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공·품질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높이고, 전문직식 확보로 (주 2회) 시행되고 있으며, 영남본부장 및 건설 시범비를 절감함으로써 공단 신뢰도가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.

교육을 시행한다. <영남본부 신용호 기자>

